

#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71
------	------

2022. 2.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21일, 권수정 의원 외 19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2.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권수정 의원)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울시 일부 관광사업장에서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호텔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동안 부당 전보·해고, 성과연봉제 도입, 복수노조 등을 이용해 주차장 관리, 객실 청소, 시설관리 모두 완전 외주화됐음.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사업부 폐지도 일방 통보한 상황임.

- 나. 그동안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 지역경제와 관련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다. 또한 세종호텔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임.
- 라.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따른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휴업·폐업·매각 등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관광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함.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결의안 개요

- 동 결의안은 코로나19에 의한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침체된 관광산업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및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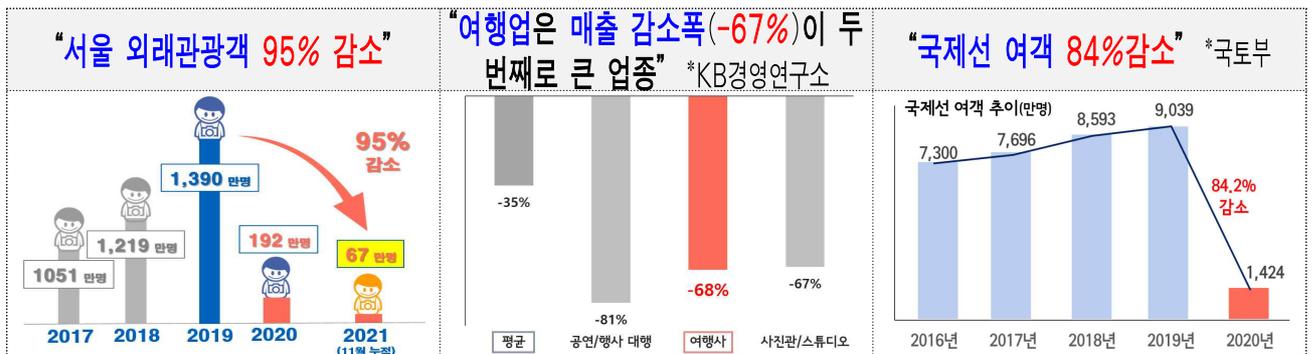
#### 나. 타당성 검토

-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세계 관광수요는 60~8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sup>1)</sup>되었고, 2020년 우리나라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16조원으로 추정<sup>2)</sup>되는 등 관광생태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39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서울방문 외래 관광객수가 2021년 67만명<sup>3)</sup>으로 95% 감소하였음.
-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폭이 두 번째로 큰 업종<sup>4)</sup>으로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만 하더라도 서울 소재 여행사 408개가 폐업<sup>5)</sup>하는 등 관광객수 급락과 관련 업계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
- 특히 서울 소재 관광업계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용자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대다수의 업체가 휴·폐업 상태이며, 특별 용자 등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실제 폐업조차도 어려운 상황임.

### < 관광업계 동향 >



1) OECD, 2020.6.2.

2) 문화체육관광부, 2021.1.

3)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통계

4) KB경영연구소

5) 전국 997개사 중 서울 소재 여행사 408개사 폐업(행정안전부 지방행정데이터 기준, 2021.8.)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서울관광재단을 통한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2년간 총 12,928개사를 대상으로 366억원을 지원하였음.

- 2022년의 경우에는 서울시 등록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백만원, 총 165억원을 투입하여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관광재개 준비를 지원할 예정임.

### < 서울 여행업·관광숙박업 현황 >

#### ○ 서울 여행업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19		2020		2021		19/21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증감율
종합여행업	3,555	-	3,394	△4.5%	3,552	4.7%	△0.1%
국내외여행업	3,552	-	3,290	△7.4%	3,268	△0.7%	△8.0%
국내여행업	1,216	-	1,242	2.1%	1,046	△15.8%	△14.0%
합계	8,323	-	7,926	△4.8%	7,866	△0.8%	△5.5%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2019년 업체수 대비 2021년 업체 수

주1)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주2)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주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 서울 관광숙박업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관광숙박업	440	-	460	4.5%	452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조사결과 미발표

\* 관광숙박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 ○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전국)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업체수	증감율
여행업	99,077	-	103,311	4.3%	61,784	△40.2%
관광숙박업	69,926	-	70,658	1.0%	49,930	△29.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의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여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시행하는 정책환경 구축,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 또한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방안 마련과 영세 소상공인 및 노동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 아시아나케이오 사태처럼 회사의 방침에 따른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세종호텔, 아시안나케이오 사례 >

- 세종호텔의 경우, 2021년 11월 코로나19 장기 상황으로 인해 15명의 근로자를 정리하고 하였는데 세종호텔노동조합측은 정리해고 선정기준의 부당성, 고용유지지원금 및 자산매각 미고려 등을 사유로 파업을 선언하고 사측과 현재까지도 대치하고 있음.
- 아시안나케이오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순환무급휴직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5월 8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음. 아시안나케이오노동조합측 또한 세종호텔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등 사측의 미온적인 근로자 보호 태도를 사유로 2021년 5월부터 사측과 대치하고 있으며 아시안나케이오는 해고자 복지판결에 대한 항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다. 종합의견

- 현재 관광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만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으로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동 결의안은 이에 따른 관광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촉구를 결의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의 고용안정에 근본적이고도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71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상구,  
송아량, 양민규,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

## 1. 주문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위기에 따른 호텔 등 관광사업장의 휴업·폐업·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는 관광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서울시 일부 관광사업장에서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호텔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동안 부당 전보·해고, 성과연봉제 도입, 복수노조 등을 이용해 주차장 관리, 객실 청소, 시설관리 모두 완전 외주화됐음.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사업부 폐지도 일방 통보한 상황임.
- 그동안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또한, 세종호텔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노동자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다. 기타 : 해당 없음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빠졌던 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사업장에서는 경영 위기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산업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었다. 2년 가까이 휴업과 휴직, 임금삭감 등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결국 매각, 폐업, 정리해고 등에 의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당한 정리해고와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세종호텔. 부동산 투기 자본에 고용보장 없는 호텔 사업장 밀실 매각을 추진한 제주 칼호텔. 사업장 매각은 없다며, 사업장 매각 철회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재매각 되었음을 통보한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등 폐업과 휴업, 매각 등 관광산업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호텔은 12월 9일부로 노동자 1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호텔기업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바뀌치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고통 전가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던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비단 세종호텔과 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 뿐 아니라, 코로나 피해를 받은 관광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관광산업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장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울지역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은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재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서울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